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발전 방향 제안

최정일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ntroduction of the Internet-only Bank and Development direction Proposal

Jeong-II Choi

Division of Business, Sung Kyul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 콜센터에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점포 은행이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어 기존은행에 비해 예금·대출 및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산업간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서비스, 모바일과 스마트폰, 산업간 융합

Abstract Korea is ahead of the launch of internet banking professional following to America, Europe and Japan. Internet banking is a professional non-store bank to conduct business such as deposits and loans on the internet and call centers. It is operating in a low-cost structure and minimizes the loans and deposits, various fees than traditional banks and obtains a profit. In order to be successful internet banking professional to develop a differentiated work with the existing banks should be competitive. In this paper, we explore and analyze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domestic Internet banking professional future. Also it is expected to enable faster and more convenient one-stop financial services. Internet specialized bank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further by the inevitable competition with conventional banks as developing differentiated financial services. Deregulation of banks and industries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companies of security, insurance, telecommunications, and retail are expected to lead to the convergence among industries and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ervices.

Key Words : Internet-only Bank, Internet Banking, Financial Service, Mobile & Smart Phone, Industrial Convergence

Received 8 July 2016, Revised 10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Primary Author: Jeong-II Choi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SungKyul University),
Email : cji3600@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점포 은행이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어 기존은행에 비해 예금·대출 및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은행과 비교하여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며 수수료가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 최근 미국은 20여 개, 유럽은 30여 개, 일본은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은행 업무와 달리 일부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1].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개혁의 최대 성과로서 참여 기업들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0년 이상 늦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여 수익을 높여야 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의 장점을 부각시켜 기존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과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 전후 설립된 인터넷 증권사의 경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성공을 거두었듯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성공을 위해 수수료 경쟁 및 업무 범위, 시장 규모 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전문은행

2.1 정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수 인원으로 영업점을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및 인터넷, 콜센

터 등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인터넷 은행은 일반 은행처럼 예금 및 적금, 대출, 신용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점포 사업이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영업점을 개설하여 보완할 수도 있다.

설립 초기에는 무점포 형태의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여 Direct Bank나 Pure-play Internet Bank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오프라인 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nternet Primary Bank라 부르거나 모바일 채널이 등장한 이후에는 Digital bank라 호칭하고 있다[31].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बैं킹과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터넷 बैं킹은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지만 인터넷 은행은 계좌 개설과 가입서류 제출, 예금 및 대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처리하며 고객의 신원은 화상통화와 공인인증서, 지문 및 얼굴 인식 등으로 파악한다.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2015년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은행업을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2016년 금융위원회의 본인가 통과를 거쳐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2.2 특징과 필요성

인터넷 은행의 특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첫째, 영업점이 없어 기존 은행보다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나 지점 운용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절감으로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및 수수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बैं킹처럼 지역적 제한이 없어 접근성이 좋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빅 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고 디지털이자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디지털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기까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2].

<Table 1> Feature and expected effect of Internet-specialized bank

	Account establishment	Transfer	Payment	Loan	Assets management service
Existing bank service	- Customers will visit a bank	- This process requires, such as bank name, account number, password and security card, certificate	- The difference payment of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 Difficulty expanding merchant of Debit payment	- Credit rating based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 Increased costs by randomly marketing	- Counselor (PB) is limited and face-to-face consulting offers
Internet bank service	- Internet or mobile launched - Large customer accounts can be opened in cooperation with ICT companies	- Available as a messenger and SNS in a Smart phone, Internet, Mobile - Biometric etc. Authentication in a Smart phone	- Easy payment manage various payment methods - Associated services and Merchants can gain from Internet & Mobile	- Credit rating by leverage your customer information of many industries, such as SNS - Personalized product recommendation for every customer	- Various professional and counseling available by through the Internet & mobile - Possible individual asset management by Automated programs
Expected effect	Rapid account opening in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mproved simple and usability	Use Easy Integration Solutions and Customized coupon service	Customized services by the economic costs	Meet the needs of customers and assets, Customized products sales

Source : Y. S. Cho(2015)[2]

인터넷 은행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제는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해 기존 은행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최근 다수의 은행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에 익숙해지면서 영업점 방문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셋째,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핀테크 산업이 부각되면서 금융 산업은 ICT 등 비금융 산업과 상생 및 경쟁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넷째,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고객 중심의 저렴하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 등에 자유롭고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형을 기대하고 있다[3].

여섯째, 최근 고객들은 창구거래보다 인터넷뱅킹 선호도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

3.1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Security First Network

Bank’로 미국에서 1995년에 설립되었다.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사례는 모회사의 영업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사례는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우로 조사되었다[4,5].

3.1.1 미국

미국은 1995년 세계 최초로 ‘SFNB’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이후 최근 20개 내외의 인터넷 전문은행(2014년 9월 현재)이 파악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으며 이중 9개사가 비은행 금융그룹(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당시에는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ILC(Industrial Loan Company) 등의 면허로 인가를 받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여 산업자본지분을 매각하는 등 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은행과 동일하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 및 감독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뱅킹업무수행에 따른 리스크(electronic banking concerns)”를 중점적으로 심사

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2014년 9월 현재 6,050억 달러로 은행 전체의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출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예금은 4,383억 달러로 은행 총예금 대비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결제성예금과 비결제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기순이익은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이자수익이 차지하고 있다[3,6].

3.1.2 일본

일본은 2000년도 초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재넛뱅크(Japan Net Bank)’를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은행, 증권, 통신, 유통 등 다른 업종들과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 Rakuten Bank는 최대 계좌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은 이자(62%)와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32%)가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결제업무에 차별화된 ‘eBank’ 브랜드를 활용하고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SBI Sumishin Net Bank는 투자신탁 등 자산운용이 특화되어 있으며 주요 수익은 대출 이자(67%)와 유가증권 운용의 투자수익(22%) 등이 있다. 차별화 전략으로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을 연계한 시너지 영업과 각 상품에 대한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Sony Bank는 고객창출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은 대출로 인한 이자수입(72%)과 유가증권 운용의 투자수익 등이 있다. ‘Sony’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활용하여 설립 당시 고객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였다[7,8].

3.1.3 유럽

유럽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형은행 및 비은행 금융그룹의 해외진출이 목적이며 젊은 층이나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모 은행의 브랜드 및 IT 인프라, 고객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교차판매나

상향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

영국은 1998년에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에그뱅크(Egg bank)’를 설립했으며, BNP 파리바는 2013년 5월 모바일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인 ‘헬로뱅크(Hello bank)’를 유럽 내 최초로 8,000만 유로를 투자해 설립하였다. ‘헬로뱅크’는 4년 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5년 내 1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포르투갈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액티보뱅크(Activo Bank)’를 2010년에 출범했다. ‘액티보뱅크’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able 2> 같이 원격상담을 제공하는 ‘Relationship Manager’를 운영하고 있다. ‘액티보뱅크’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16개 지점을 설치하여 대면 채널을 통해 부유층과 젊은 층을 확보하고 있다[9].

<Table 2> The principal service of Internet-only bank Hello Bank

Paperless Acquisition		Differentiated interest rates and fees	
Personal deposits received ○	Corporate deposits received ×	Personal Loans ○	Corporate Loans ×
Hello team (Customer Support)		Hello Personal (Extra service)	
Mortgage product handling ○	Investment products handling ×	Credit card issuers ○	Insurance products deal ×

Source : H. N. Kim(2015)[9]

3.2 일본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 초기에 수익성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립 초기 IT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고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은행들의 주요 사업으로 예상되는 금리대출 시장의 경우 기업 간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 몇 년 동안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

1) 통화감독청은 ① 벤더관리, ② 정보시스템, ③ 웹링킹, ④ 암호화, ⑤ 침입탐지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Table 3> Turnaround Required Time of Japan Internet Bank

Company	Sales start year	Turn around year	Neces-sary period
Daiwa Next Bank	2011	2012	2
SBI Sumishin Net Bank	2007	2009	3
Jibun Bank	2008	2012	5
The Japan Net Bank	2000	2004	5
Sony Bank	2001	2005	5
Rakuten Bank	2001	2009	9

Source : M. S. Chae(2015)[10] etc.

일본 인터넷 은행은 <Table 3>와 같이 한국보다 16년 먼저 도입하였으며 흑자전환까지 평균 5.4년이 소요되었다. The Japan Net Bank는 2000년 영업 개시 이후 흑자까지 5년이 걸렸으며, Rakuten Bank와 Sony Bank, SBI Sumishin Net Bank, Jibun Bank는 각각 9년과 5년, 3년, 5년의 시간이 걸렸다. Daiwa Next Bank는 모기업인 다이와증권의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하여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다[10].

인터넷 은행은 무점포로 인해 비용의 효율성이 우수하여 기존 은행들 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한 고객을 확보한 이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은행업 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얼마나 빠른 시기에 흑자전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1].

4. 국내 인터넷은행 현황과 발전 방향

4.1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FinTech)²⁾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되었다. 도입배경은 IT 강국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권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금융 산업의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12,13].

2)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 및 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백과사전)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행제도는 비금융주력자³⁾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가 실시되어도 ICT기업⁴⁾ 등 창의성과 혁신성을 앞세운 후보기업들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⁵⁾은 규제 완화보다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14].

<Table 4> Shareholders Composition

	Shareholders Composition
Korea Kakao bank	Kakao, Netmarble, Roan, SGI Seoul Guarantee, Korea Post, EBay, Yes24, Kona child, KB Kookmin Bank, Tencent, Korea Investment Holdings(11)
K Bank	KT, Hyosung ITX, Nautilus Hyosung, Wear global banks, Posco ICT, Beurijitek, Mobile Reader, GS Retail, Woori bank, Hyundai Securities, Hanwha Life, Danal,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formation Anaheim, Korea Tourism Organization etv(20)

Source : D. H. Cho(2015)[12]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Table 4>와 같이 현행 소유구조로 인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은산분리 규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주식지분변경이나 의결권 공동행사계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유규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12].

기존은행은 고유업무, 경영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업무 개발로 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선진국의 인터넷 전문

3)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geq 전체자본의 25% 또는 비금융회사 자산총액 \geq 2조원

4) Portal, Communication, Community(SNS, 메신저 등), e-Commerce(전자상거래) 등 미국의 빅6기업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인텔 등이 있다.

5) 한국 기업 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직전사업년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한다.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되며 삼성그룹, 한국전력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이 있다.

은행의 사례를 보면 업무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14].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영업점이 필요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이다. 최근 국내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설립 초기에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어 경쟁력 확보와 현실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건전한 재무상태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15,16].

4.2 발전 방향

국내에서 처음 설립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작은 틈새시장을 기대하고 있어 기존은행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 기존 금융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을 개혁하거나 다양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한다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기존은행과 영업 형태가 다르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 설립되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경제 논리로 해결해야지 정치·사회 논리로 바라보면 경쟁력이 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초기에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규제수준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ILC제도⁶⁾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여 운영되고 있다[14].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카카오가 자산 규모로 인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카카오는 재벌이 아니므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기존 대기업에게는 은산분리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7,18].

최근 은행 및 증권사들이 스마트금융부를 운영하면서 스마트뱅킹(Smart Banking)과 모바일증권거래(Mobile Trading System)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기존의 스마트

금융은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지시하는 일만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금융시장에 인공지능 개념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19].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 업무 및 신용카드 거래가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져야 하며 주식거래 또한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20,21,22].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과 테크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했으나 스마트폰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와 인터넷 전문은행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모바일 결제시장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1,23].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과 뛰어난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은행과 경쟁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24,25].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스마트금융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첨단 핀테크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3 전문가의 발전방안 제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게 되면 은행권의 경영혁신 및 IT산업과 융·복합으로 금융소비자의 경쟁력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진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추진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응방안을 명시하여 향후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26].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새로운 금융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업·경제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사회 논리로 키우면 기업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존 시중은행과는 영업 형태가 다른 만큼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17].

인터넷 증권사는 수수료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해서 성공했으나 인터넷은행은 경쟁력이 크지 않고 업무 범위도 한정적이고 대상 시장도 크지 않다. 하지만 우수한 국내 핀테크 기술을 반영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금융시장의

6) 산업자본이 대주주 가능, 채권을 위주로 자금조달 또는 1억 불 이내에서만 자산 운용

강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1,27].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 진입의 기대효과 중 가장 큰 부분이 은행산업의 혁신성 제고이며 이를 위해 독일의 Fidor Bank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터넷은행들도 Fidor Bank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고객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28].

금산분리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새로운 모바일 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융합혁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은행 중 적어도 하나는 행장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나와야 모바일금융 혁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2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국내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0].

5. 향후 전망 및 결론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원-스톱(one stop)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뱅킹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과 IT산업이 융합되면서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⁷⁾ 국내 IT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⁸⁾. 온라인 증권사의 성공에 이어 온라인 전문은행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업체(2016년 현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우선 시범 인가되었으나 향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된 두 은행의 성공여부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넷뱅킹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거래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타 금융기관과의 자산현황 통합조회,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자산관리, 안전한 금융거래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산업간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향후 추가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들은 거액의 투자비용과 흑자전환소요기간, 보안 및 통신장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다각적인 사업 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H. N. Moon, "Internet specialized bank Launch, expectation half, concern half", Venture column, Global Economics, 2016.
 - [2] Y. S. Cho, "Business Model and Implications of Korean Internet specialized bank", Bain & Company, pp.1-31, 2015.
 - [3] S. R. Ahn,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appearance", Issue Report,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Vol. 15, No. 11, pp.1-27, 2015.
 - [4] B. H. Seo, "Korean Internet specialized bank introduced measures", Report, Korea Institute of Finance, pp.1-70, 2015.
 - [5] S. J. Kang, "International Internet specialized banking trends and Domestic ISSUES", KB Knowledge Vitamins, KB Financial Group Institute of Management, Vol. 14, No. 73, pp.1-8, 2014.
- 7) 서울시는 2016년 4월 핀테크기업(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KTB솔루션, 스트리미, 8퍼센트, AIM, 팝핀딩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금융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금융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안하였다.
- 8)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약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금융위원회 2015)

- [6] D. J. Cheon, "US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system and status", Financial and economic trends issues briefs, WFRI, Vol. 4, No. 55, pp.1-4, 2015.
- [7] B. H. Seo, "Expected effect and implica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Finance Brief, Korea Institute of Finance, Vol. 24, No. 33, pp.10-11, 2015.
- [8] Y. M. Seo, "Enhancing synergies case of Japan's Internet-based securities firm specializing in bank", Financial Investment, KFLA, Vol. 167, pp.1-24, 2015.
- [9] H. N. Kim, "Overseas Internet professional Bank, to meet customer needs more easily, conveniently", Money Today IT, 2015.
- [10] M. S. Cha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internet banking, how has vary the banking industry", Nice Special Report, Nice Credit Rating, 2016.
- [11] M. S. Kim, "Internet specialized bank, for the time being inevitable deficit after the establishment : the initial IT infrastructure deployment and marketing costs spent", Daehan Financial Newspaper, 2016.
- [12] D. H. Cho, "Major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domestic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introduction", Issues and Argument, Legislative Assembly Research Unit, pp.1-4, 2015.
- [13] Y. H. Kim, "Internet Ethics for Mobile SNS Era",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2, pp.1-8, 2013.
- [14]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roduction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pp.1-16. 2015.
- [15] J. W. Kim • S. T. Park,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 Consumer's Switching Behavioral Intention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 Environmen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 pp.199-209, 2013.
- [16] B. C. Kim, "A Internet of Things(IoT) based exploration robot design for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185-190, 2015.
- [17] U. Y. Choi, "Boldly mitigating the removing regulation of banks and industry to activate Internet specialized bank", Economic Brain interview, MK, 2016.
- [18] S. P. Lee • S. H. Wang, "The Situations of Internet Primary Bank in Major Countries and Some Legal Implications", Collection of Law Treatises, Vol. 33, No. 1, pp.303-339, 2016.
- [19] L. S. Kim,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26, 2015.
- [20] S. H. Park, "Trend of division and congregation ahead of the No.1 Internet specialized bank", Issue Inside, MK Economy, Vol. 1821, pp.13-13, 2015.
- [21] K. S. Song,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e-Finance by Active Interne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8, No. 2, pp.189-202, 2010.
- [22] S. H. Lee • D. W. Lee, "A Study on Internet of Things in IT Convergence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267-272, 2014.
- [23] C. H. Yoon • G. D. Choi, "The Effects of National Culture on Ethical Decision-Making in the Internet Context :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23-36, 2014.
- [24] S. H. Kim • J. S. Han, "Smart Cold-Chain Monitoring Automation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Internet of Th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351-356, 2014.
- [25] S. P. Jung, "A study on child support payments and child support calculation methods", International Judicial Affairs, Vol. 7, No. 2 , pp.37-59, 2015.
- [26] B. H. Seo, "Expected effects and implicatio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banking professional", Weekly Financial Brief, Vol. 24, No. 33, pp.10-11, 2015.
- [27] M. J. Lee • K. I. Khoe, "Development Method of Digital Content Finance-Focused on by Technical Value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11-117, 2015.
- [28] S. J. Lee, "Orientation of the Internet professional bank looked to Germany Fidor Bank Case", Weekly Financial Brief, Vol. 24, No. 48, pp.10-11, 2015.
- [29] J. G. Oh,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requirements of the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succes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minar paper, Vol. 16, No. 5, pp.1-23, 2016.

[30] Y. S. Jeon · H. R. Kim, "Internet professional banking, Issues and Prospects", KIRI weekly, Vol. 339, pp.1-6, 2015.

[31] Wiki Pedia : ko.wikipedia.org/wiki/

최 정 일(Choi, Jeong Il)



- 1983년 2월 : 서강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재무관리, 투자론, 파생상품
- E-Mail : cji3600@hanmail.net